

제163호

발행일 : 서기 2024년 5월 30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 안동김씨대종회 제57회 정기총회 성료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11시부터 보인고등학교(이사장 김석한 대종회장) 시청각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안동김씨 220여 종친들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태영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식순에 의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로 국민의례를 마치고 각 파종회 별로 참석한 종친들

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석한 대종회장의 인사 말씀에서 대종회관 임대료를 인상하여 연 5천만 원의 중재를 증식하였고 뿌리 교육을 위한 만화 제작을 하고 있으며 가제본된 1권을 소개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사무총장은 올해에도 우리 안동김씨대종회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물계서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익원공파 수원 판결사공 중증을 비롯한 전국의 중증 및 종친들께서 지난해 1년 동안 약 4억 5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주셨으며 이러한 협조에 힘입어서 물계서원추진위원회에서는 감천면 덕울리에 서원 대지를 매입했고, 아울러 올해 2월에는 영남의 유림 및 후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하여 《김방경과 예천 물계서원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물계서원을 복원하는 단계를 순조롭게 진행해 가고 있음을 보고했다.

대종회의 두 번째 사업으로는 올해 말까지 대종회 홈페이지를 최신 모바일 버전으로 정비해서 글과 사진을 손쉽게 올리고 핸드폰으로도 누구나 족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족보 업데이트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각 파종회 사무국장과 담당자들은 수단 업무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세 번째 당면 사업은 『안동김씨 순례기』 ‘뿌리를 찾아서’ 만화 제작으로 모두 3권으로 구성하여 후손들의 뿌리 교육에 방점을 두고, 제1권은 비조 김알지에서 충렬공 증시조까지... 제2권은 충렬공 증시조에서 각 파조에 이르기까지... 제3권은 각 파조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동김씨 문중의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1권은 4월 중순 무렵에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가 정비되면 탑재하여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충렬공 증시조께서 유상하시던 고산정 복원과 추원단을 정식 허가를 받아 낙동강이 흐르는 회곡리 상고산 언덕에 복원하여 명실상부한 안동김씨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해 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서 (按)태선·(典)헌덕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상정에서는 대종회장께서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2023년도 결산서와 2024년도 예산안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머리국밥과 수육으로 식사하며 대종회장께서 단합을 강조하는 건배를 제창하는 등 종친 간 화목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 모두에게 미니믹서기와 군사공파종회 준회 회장께서 증정한 기념타올 200장(80만원 상당)을 선물했다.



### 『안동김씨 순례기』만화책 인쇄 배포



안동김씨대종회는 5월2일 만화로 보는 나의 뿌리 《안동김씨 순례기》 제1권 뿌리를 찾아서... 1차 3천권, 2차 3천권 (합 6천권)을 제작하여 각 파종회로 배포했다.

이 만화책의 시작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본관이 어디인가를 묻는 장인어른의 질문을 받으면서 본관을 알아가는 과정과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가 누구인지 뿌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안동과 후(신)안동의 구별, 파계보와 항렬자, 유적 등 우리 안동김문의 역사를 흥미있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이 책은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사(뿌리)를 쉽게 알게 하려는 뜻에서 대종회 김석한 회장의 강력한 권유로 만화책으로 편찬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만화책이며, 어른들도 읽고 그 뜻이 손자 손녀에게 옛이야기로 전하여질 때 훌륭한 뿌리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에는 2권과 3권에 우리 안동김문의 역사인물을 선정해서 다룰 예정이며, 현재 개편 작업중인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웹툰으로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57회 정기총회 찬조금 현황

1백만원	【翼】석한-대총회장	1,000,000
8십만원 (물품)	【郡】준회-군사공파총회장 (총회 기념타올 200매 = 8십만원 상당 증정)	
3십만원 (3명)	【判書】판서공총회 【文英】문영공총회 【翼】재진-당진	900,000
2십만원 (14명)	【文】영환-판서공회장 【郡】원중-파총회장 【大】태권-파총회장 【提】·백전종중·근식-망우 【按】·형남-파총회장·파총회 【翼】·영수-파총회장·재용-고문(서초)·용세-고문(당진)·익원공파총회·효소공총회·수원참의공총중 ·목사공총회	2,800,000
1십만원 (30명)	【郡】·자산공총중·형목·형식(용회)·성목-인천종친회장-평택 【文】재호-고문 【都】희중-부울경회장 【大】태식-고문(보성) 【提】·파총회·태현-문영공회장(제천)·덕응-부회장(공주)·용식-수도권회장·생원공총회(천안) 【按】·영만-고문(진천)·광식-판교공(여주) 【翼】·재영-고문·태용-부회장(수원)·태철-이사(수원)·재남-고문(화성)·재택-부회장(논산) ·호군공총회(나주)·재훈-고문(의정부)·용서(서대문)·태연-이사(사무국장)·태신-이사(약수) ·재교-안동종친회장·상묵-안동유사·정희-이사(부산)·윤희-문정공회장 ·영화-부회장(대구)·주부공총회(강릉)	3,000,000
5만원 (3명)	【郡】·(郡)완회-평택·강묵-동탄 【翼】·재상(장위동)·인규·인식(나주종중)	150,000
	소계	7,850,000

■ 제57회 정기총회 회비 현황

3만원 160명	【開】·이경·태복·웅선 (3명) 【郡】·재달·주회·진수·정수·영희·광문·재훈·길희(병수)·수학·민희·재욱·지묵·재강·봉희·재송 ·덕희·재원·재희·재용·발용·장묵·완희·태동·형목·태봉·대용·종용·창희·천수·태우·강묵 (31명) 【典】·헌덕·대교·용교·재용·상교·종학·순교 (7명) 【副】·창호·원호·태형 (3명) 【文】·태근·영기·태식·동묵·광묵·수길(고양)·수길(대구)·덕만·재호·태만 (10명) 【都】·원중·우회·숙희·정희·갑숙·희열·진중·정수·난수·옥수·대회·재선·회수·정희 (14명) 【大】·태권·태식·태종·태영·재수·재귀·재갑 (7명) 【提】·태현·규원·규석·탁응·태건·재삼·근식·명식·운철·보희·관응·낙응·미호·하용·태영·태남 ·태시·태빈·영식 (19명) 【按】·태영·태선·재필·광식·용국·용주·봉진·범식·태윤·용원·국희·백현·철희·명식 (14명) 【翼】·영수·재영·태철·재정·태문·득희·은희·재권·덕희·태선·태익·재교·종성·대식·난향·상묵·용운 ·읍용·용덕·윤묵·장희·태선·형식·성희·태준·재봉·진희·재훈·광수·태욱·용호·계묵·재형 ·기범·재훈·재도·태용·태걸·인희·권희·영화·달수·영희·정묵·종묵·용주·홍식·태신·태연 (49명) 【正】·수선·경랑·태형 (3명)	4,800,000 +30,000
	합계 12,680,000-12,650,000=30,000 (무명)	12,680,000

2024년 상반기 회장단회의 성료



사무총장의 업무보고에 이어진 태선 감사와 헌덕 감사의 감사보고와 23년도 결산보고, 24년도 예산(안) 설명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처리하고, 전년도 이루지 못한 사업을 2024년도 시행할 예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동김씨대총회는 3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김석한 대총회장의 사옥인 인성빌딩 4층 회의실에서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태영 사무총장은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의례와 선조님에 대한 묵념, 참석임원 소개, 성원보고가 이루어 졌다. 이어서 석한 대총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멀리 강진. 보성. 대구 등에서 참석하신 부회장님들과 고문님 들께 참석을 환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총회 휘경동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종재 증식과 물계서원 진행과정, 뿌리교육용 만화 제작 등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인사말씀을 마쳤다.

- ①회곡리 재사 및 관리사 정비공사.
- ②최신 모바일 버전에 맞게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 ③인터넷속보 업데이트 (수단공고 중보 162호)
- ④수집 고문서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처리.
- ⑤뿌리교육 만화(제1편) 3,000부 인쇄 파별 배포.
- ⑥안동김씨 청장년회 조직 (년 2회 정기 모임 계획)

이날 회의를 마치고 대총회장께서 참석한 임원님들께 신상품인 담요를 선물하고 인근 중일가든 식당으로 이동하여 전복갈비탕으로 식사와 반주를 들면서 임원님들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시라는 건배사와 대총회 발전을 기원했다.



# 2024년도 대종회 이사회 성료

안동김씨대종회는 3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주학원(보인고) 시청각실에서 김석한 대종회장을 비롯한 고문, 부회장, 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이사회를 개최했다.

석한 대종회장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태영 사무총장은 국민의례,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제창, 참석 임원 소개 순서로 진행을 했다.

우리 대종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으나 기념관측 대관 계획에 따라 부득이 금년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 대종회장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대주학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회편 대종회장 인사말씀에서 청년 종친 활성화를 위해 년 2회 모임의 장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판서공중회의 활성화를 위해 4월 판서공중회 시제에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종회 전반적인 업무와 물계서원 복원 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감사보고 순서에서 태선 감사와 헌덕 감사는 휘경동 대종회관 임대

료 인상과 물계서원 복원을 위해 많은 성금을 이끌어 낸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고, 이어서 2023년도 결산서와 2024년도 예산서(안),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기타 사항에서 현재 진행중인 뿌리교육 만화 제작을 전 3편으로 기획하고 현재 1권 비조 김알지에서 중시조 충렬공까지 제작을 마치고 인쇄만 남겨 놓은 상태이고 이어서 2권은 충렬공에서 파조까지 3권은 파조에서 근·현대 인물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안동 회곡에 상고산에 고산정을 복원하여 역사문화공원을 재조성하기로 했다.

전달 사항에서는 홈페이지 정비와 인터넷측보 업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각 파별로 홍보를 하여 수단에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 승의전 춘계 대제에 김영환 판서공회장을 분헌관으로 선정했으며 익원공파 정묵고문(전 대구종친회장)의 대종회 발전기금 2백만원 납부를 소개했다.

회의를 마치고 구내 식당에 마련된 소머리곰탕과 수육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해산했다.



## 판서공중회 김영환 회장 승의전 춘계대제 분헌관 봉행



2024년 4월 7일(일) 11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승의전에서 개성왕씨 후손, 고려공신 후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 기원 1107년 승의전(崇義殿) 춘계대제(春季大祭)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김덕현 연천군수, 아헌관에 배영민 경주배씨 대종회장, 종헌관에 왕두수 승의전 감, 봉조관에 왕봉식이 맡아 헌작을 했고, 배신청에 봉향 된 16공신 중 첨의령 충렬공 김

방경 위패에는 김영환 안동김씨대종회 부회장(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장)이 분헌관으로 참사했다.

승의전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과 나라를 중흥시킨 현종, 문종, 원종 등 4분의 왕 위패를 모시고 있고, 배신청에 복지겸, 홍유, 신승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 16공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제례악이 울리면서 ▶점시 ▶영신례 ▶관창례 ▶전폐례 ▶봉조례(진찬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공신 분헌례 ▶음복수조례 ▶망료례 순으로 제례가 진행됐다.

제례 봉행 후 전사청과 양암재 밖 마당에 차려진 야외용 테이블에서 이동 식사차에서 배식하는 뷔페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제례 추진 위원회는 용산역에서부터 버스 2대를 대절해 제례 참사자들에게 편의

를 제공했다. 승의전은 조선시대 1605년(선조 38년), 1727년(영조 3년), 1789년(정조 13년), 1868년(고종 5년), 1908년(순종 2년)의 다섯 차례에 걸쳐 개수와 중수를 하여 잘 보존됐으나 한국전쟁 중 건물이 전소했으며, 1971년 사적으로 지정하고 그다음 해부터 재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건물은 승의전을 비롯하여 배신청, 전사청, 양암재 등 5동의 부속 건물이 있다. 안동김문의 참사자는 분헌관을 맡은 영환 대종회부회장, 윤만 안사연 회장(문온공파회장), 천만, 영웅, 동묵(이상 문온공파), 형식(익원공파), 태우, 민회, 천수, 태영 사무총장(이상 군사공파)이 참사했고, 부사공파에서는 태형 철원종친회장, 규훈 포충사사무국장, 규세 전 철원향교 전교, 임병순 철원향토사학자 등이 참사했다.





## 제41회 안동김씨 문영공종회 정기총회

2024년 3월 28일(목) 안양 평촌 아르떼채플 컨벤션홀에서 문영공종회 김태현 회장을 비롯한 종친 2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안동김씨 문영공종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태철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문영공종회 태현 회장의 개회사, 태영 사무총장, 윤만 안사연회장의 축사에 이어서 재영 명예회장의 흥진국준비 건립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감사보고와 2023년도 결산서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고, 영만 전 문영공회장의 격려사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정갈하게 차린 가이세키(일본식 요리) 음식으로 오찬을 나누고



총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총회를 마쳤다.  
- 김태철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

## 2024년도 군사공파 정기총회



5월 11일(토) 오전 11:00 종로 한일옥 3층에서 김준회 파종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임원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군사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장묵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국민

의례와 선조님에 대한 묵념에 이어서 성원보고와 준회 파종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서 지난 4월 강진 향사에 참례하신 종친들의 안부와 바쁘신 가운데도 원근 각지에서 총회에 참석해 한자리에 모여 주신것에 대한 감사와 덕담으로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덕회·태우 감사의 감사보고와 장묵 총무이사의 2023년도 결산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기타 사항에서는 부동산 관리와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다음번 이사회에서 다루어 차기 총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태영 사무총장의 대총회 소식과 인터넷족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준비한 불고기로 식사하면서 승조 돈목의 시간을 갖었다.

-김장묵 군사공파종회 총무이사 -

## 홈페이지(인터넷족보) 및 만화 제작 소위원회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휘경동 대종회관에서 제작사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 최신버전(모바일) 개편과 인터넷족보 수단 및 제2편 뿌리교육용 만화 제작에 따른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내용은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제2편 만화책 제작의 수록 인물 선정과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인터넷 족보 개방 여부, 그리고 게시판 인증제도 변경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에 추대된 윤만 안사연 회장은 태영 사무총장이 초고를 만들

어 조율해 나가는 방식을 제시하고,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인터넷 족보 개방에 따른 게시판 불법광고 방지를 위한 개인 인증제도 방안(휴대폰 문자인증)을 모색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 1) 지파·기타 종회 : 판서공종회 추가, 총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등 링크.
- 2) 게시판 : 키워드 검색기능 강화, 상시 게시방, 묻고 답하기 등
- 3) 신규 메뉴 : 유튜브(동영상) 링크, 만화(웹툰), 배너 광고 등
- 4) 유적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함벽루, 상산관 등 유적 등재.
- 5) 역사 인물 : 기존 이외의 추가 등재 및 기존의 자료가 없는 분 삭제.
- 6) 등재 : ①공직자, 장·차관, 국영기업체사장, 지원장·지검장 이상, ②교육, 대학총장·학장 이상 ③군인, 장군 이상

※이 외에도 등재를 필요로 할 때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원칙으로 함.

홈페이지(인터넷족보) 및 만화 제작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文) 윤만 안사연회장, 고문 (文)영환·(翼)재영·(書)상호, 위원은 (副)원호·(提)운철·(按)용주·(翼)태연, 간사는 태영 사무총장이 맡았다.

## 대종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 익원공파종회 제54회 정기총회 성료



2024년 3월 29일 11시 영등포 신풍역 앞 베뉴비안(백악관) 웨딩 컨벤션홀에서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제54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석한(錫漢) 대총회장을 비롯하여 태헌(泰憲, 提) 문영공종회 회장과 형남(亨南) 안림사공파종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파종회에서는 재용(在瑢) 전임회장(고문)과 재영(在永) 전임회장(고문), 재남(在男) 명예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약 90여 명의 종친분이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어서 호군공. 참의공. 부령공. 전침공. 문정공. 효소공. 목사공

등의 종인들 소개가 있었다. 이어진 영수(榮秀) 회장의 인사 말씀에서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셨으나 갈수록 종인들의 참여가 적어지는 것이 아쉽다며 파종회에서도 종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문영공종회 태헌 회장과 안림사공파종회 형남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대총회 석한 회장은 대총회에서 추진 중인 물계서원 복원과 뿌리 교육을 위한 만화 제작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참석하신 종친 모두는 물계서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태연(泰連) 사무국장의 중무 보고와 달수(在汕)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제1호 의안 2023년도 결산안 상정과 제2호 의안 2024년도 예산안 상정이 있었고 종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기타 안건으로 목왕리 산49번지 17,582평 별목에 관한 건도 별목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정갈한 음식으로 오찬을 나누고 파종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총회를 마쳤다.

- 김태연 익원공파종회 사무국장 -

## 2024년(갑진) 송천서원 제향

지난 4월 28일 음력 3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양지길 22-3, 송천서원(松泉書院)의 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남양인 홍성모 청주향교 전교, 아헌관에는 전의인 이상돈 전서(選部)공파 전 이사장, 종헌관에는 안동인 김형남 안림사공파 종회장, 직일에 고령인 신원식, 집례에는 김해인 김한덕 청주향교 총무장의, 대축에는 청풍인 김진우 청주향교 의전장의, 봉향 김사부, 봉로 김윤희, 사준 김남식, 봉작 김태열, 전작 김락희는 모두 안동인으로 안림사공파 소속이고, 찬창에 한양인 조성규, 찬인은 진주인 소철영님께서 수고하여 주셨다. 오창 송천서원은 전임 원장이 와병중인 과도기에서 안림사공파 김선희 전임 회장께서 임시원장 직임을 맡아 제향을 주관하였다.

송천서원은 1695년(숙종 21)에 청원군 옥산면 송천리 송천마을에서 안동인 오은 김사렴(梧隱 金士廉, 1330~1405)을 주벽으로 전주인 평도공 죽정 최유경(平度公 竹亭 崔有慶, 1343~1413), 전의인 효정공 이정간(孝靖公 李貞幹, 1360~1439), 상주인 정절공 필재 박광우(貞節公 葦齋 朴光佑, 1495~1545), 우봉인 삼우당 이지충(三友堂 李之忠, 1509~1562), 한양인 모계 조강(慕溪 趙綱, 1527~1599), 경주인 오촌 이대건(梧村 李大建, 1550~1574)을 배향하고 후진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1711년 숙종 37년에 '송천(松泉)' 이라고 사액되었으며, 1723년(경종3)에 전의인 평간공 청강 이제신(平簡公 淸江 李濟臣, 1536~1583)을 추향하고, 영조대에 전주인 문정공 준와 최석정

(文貞公 存窩 崔錫鼎, 1646~1715)과 경주인 매산 이인혁(梅山 李寅燦, 1634~1710)을 추향하고, 1798년(정조22)에 효정공 이정간(孝靖公 李貞幹)의 손자인 이효석(李孝碩, ?~1491), 의령인 문충공 약천 남구만(文忠公 藥泉 南九萬, 1629~1711), 고령인 충헌공 기은 박문수(忠憲公 耆隱 朴文秀, 1691~1756), 경주인 문충공 오천 이종성(文忠公 梧川 李宗城, 1692~1759)등을 함께 모셨다. 1871년(고종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76년에 이곳 오창면 양지리 현 위치에 복원하였으며 이때에 개성인 오소재 김여량(吾巢齋 金汝亮, 1603~1683)을 함께 모셔 배향인이 11개 문중에 15명이다.

주벽인 오은 김사렴 선생은 본관이 안동, 호는 오은(梧隱),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안동김씨 안림사공파 파조이시다. 첨의령(僉議令)을 지내시고 상락공(上洛公) 공작 작위를 받으신 김방경(金方慶)의 현손으로 조선개국공신 익원공(翼元公) 김사형(金士衡)의 형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문장에 능하였으며,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 벼슬이 안림사에 이르렀다. 직간으로도 유명했으며 정몽주, 이색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고려말 공민왕 재위시 공경대부들이 모두 신돈을 받들고 왕이 총애하자, 상소하여 신돈이 반드시 뒤에 정사를 어지럽히고 사직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간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청주로 낙향했는데, 태조가 여러 차례 좌사간에 임명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도산(陶山)으로 옮겨 은거하였다.

- 김태철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





# 정의공파 2024년 정기총회



▲임원진 기념촬영

안동김씨 정의공파 정기총회가 김수선 회장을 비롯한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4월 14일(일요일) 경북 안동시 육사로 205 패밀리 뷔페에서 있었다.

식순에 의하여 국민의례 그리고 김수선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사말씀을 하시고 경과보고에 이어 김용길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안전상정 및 기타토의 사항으로 물계서원 건립 관련 정의공파 종회비 찬조의결 및개별찬조 독려를 하였으며 정의공 할아버지 사적비에 전임 회장단 공덕비 제작설치건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며 인터넷 족보수단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 정의공파총회 총무 김태화 -

## 안동김씨 부·울·경 종친회 제44회 정기총회 성료



2024년 4월 28일(일요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해암뷔페(8층)에서 제44회 안동김씨 부산·울산·경남종친회 정기총회가 4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회의에서 김희중 회장은 내년

소개가 있는 후, 인사말을 통해 안동김씨 부·울·경 종친회 설립을 주도하셨고, 또한 20여 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고(故) 김태조 명예회장의 빈소를 회원들과 함께 조문했던 추모의 말씀이 있었고, 김해수(翼) 사무국장의 회무 및 회계 보고에 이어, 김정희(翼) 감사의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감사보고 후 안전 상정은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후 박수로 통과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종친회를 표방한 김희중(都)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기존 종친의 연락 두절과 젊은 종친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참석률이 저조한 종친회가 되었지만, 임원단이 노력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많은 종친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1부 정기총회 후 식사와 2부 추첨 및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고, 다음 2025년 더욱 도약하는 종친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폐회하였다.

- 김해수 부울경종친회 사무국장 -

###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2.25.~2024.5.25.)

◎ 회장회비 2백만원

(翼)석한(광진)

◎ 부회장회비 3십만원(16명)

(開)이경(파주) (郡)재이(강진) (典)재석(천안), 관교(용인 23년,24년)  
(安)흥기(제천) (提)태현(제천), 한용(청주), 덕응(공주)  
(翼)강식(하남), 재교(안동), 경희(고창), 수인(고창), 성희(부여)  
(書)각영(경기광주) (부울경)희중(都, 부산)

◎ 이사회비 2십만원(14명)

(典)진회(대구), 인교(시흥 23년,24년) (副)태형(철원)  
(提)대응(천안), 태시(천안), 태현(천안)  
(翼)인회(강릉), 정희(부산), 상묵(안동), 태강(안동), 용묵(청주)  
(書)규상(경기시흥), 정수(안양)

◎ 평생회비 3십만원(2명)

(郡)희동(정읍), 성대(정읍)

◎ 통상회비 4십만원

(典)양천중중(23년, 24년)

◎ 통상회비 1십만원(3명)

(大)태균(용산) (正)수진(남양주) (?)태식(?)

◎ 통상회비(3명) 5만원

(按)태석(정읍), 영희(청주) (翼)논산종친회

◎ 통상회비 4만원

(按)태길(은평)

◎ 통상회비 3만원(9명)

(郡)재향(강동), 호영(평창) (都)춘식(종로) (提)호식(청주)  
(翼)완식(영주), 인식(광진), 상묵(안동), 정희(송파), 태곤(청주)

◎ 통상회비 2만원

(提)춘묵(영등포)

◎ 찬조금 2백만원 (翼)정묵(대구) - 대중회발전기금

◎ 찬조금 3십만원(2명) (按)진천공파중중 (正)경랑(김포)

◎ 찬조금 2십만원(2명) (익)영화(대구, 만화책제작 찬조)

#### 회비 및 찬조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여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05. 25 기준)

## ◎ 3천만원

(翼)석한-대중회장

(書)·각영-파종회장 ·덕영-강동 ·규상-시흥 ·주일-안양 ·상호-강남  
·세영-일산 ·규삼 ·주현-廣州 ·무영-송파 ·규석-중랑  
·정수-안양 ·관영-양평 ·석영-성남 ·수영-용산 ·주형-서초

## ◎ 2억원

(翼)수원 판결사공중중

(正)태형(성립)-춘천  
(골프)·안동골프회 ·인천종친회

## ◎ 1천만원 (6명)

(都)봉회-명예회장 (文)파종회 (按)형남-파종회장  
(翼)파종회 ·수원 참의공중중 (文英)문영공중회

## ◎ 3십만원(30명)

(郡)·희동 ·성대-정읍(형제) (典)현덕-대중회 감사 (副)규훈-철원  
(文)·영윤-廣州 ·재만-대구 ·재원-포항  
(都)·회수-중랑 ·희윤-대구 ·창화-의성  
(提)·재삼 ·석응 ·태완-천안  
(按)·사부-청주 ·태성-김포 ·용원-세종  
(翼)·동화-석한회장 子 ·광일-안동 동수 子 ·원회-논산 재택 子  
·근식-동대문 ·경식-이천 ·태용-용인 ·선회-당진 ·나주종친회  
·순회-영주 ·성우 ·재준 ·재석 ·재돈-대구 ·재환-보은

## ◎ 7백5십만원

(書)파종회

## ◎ 5백만원 (11명)

(郡)·준회-파종회장 ·파종회 ·광탄중중 ·칠정문중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종친회  
(文)·영환-총렬공기념사업회장 ·참의공중중-완주  
(按)파종회 (翼)·목사공중중 ·부령공중회 ·효소공중중

## ◎ 2십만원(24명)

(郡)발용-하남  
(文)·태경-구로 윤만 子 ·천만-廣州 ·증평도사공중중  
·주회 ·명회-포항 재원 子 ·신묵-남양주  
(都)·옥수-파종회장 ·시걸-부산 ·정수-동대문 ·태성 ·재선-사촌  
(提)·덕응-공주 ·태영-수원 ·정환-제주  
(翼)·하경-석한회장 女 ·호묵-대구 영화 子 ·재진-당진  
·준식-수원 태철 子 ·종빈-의정부 영수회장 子 ·재천-홍천  
·재교-안동회장 ·종묵-대구문경공회회장 ·우회-논산 재택 子

## ◎ 3백만원 (6명)

(郡)평택자산공중중 (文)경기광주문중 (都)파종회  
(提)파종회(생원공)  
(翼)·효헌공중중 ·실경-대구종친회 고문

## ◎ 2백만원 (8명)

(郡)장안중중 (文)포천별제공중중 (安)파종회,  
(按)소윤공(지주사공)중회 (安東)안동종친회  
(翼)·재용 고문 ·재남 고문 ·문정공중회

## ◎ 1십5만원

(翼)진현-안동

## ◎ 1백3십만원 (郡)재근-부안

## ◎ 1백만원(40명)

(郡)·성묵-인천 ·재이-강진 ·중회-부산 ·태영-사무총장  
(典)·재윤-파종회장 ·처사공중회 (副)·원호-파종회장  
(文)·윤만-파종회장 ·왕용-포천 ·용구-광진 ·영욱-광주  
·음성공중회  
(都)·향회-대구화랑 ·수도권중회 (大)파종회-보성  
(提)·태현-문영공회회장 ·수도권중회 ·규원-파종회장  
(按)·영만-진천 ·철회-안양 ·선회-전파종회장 ·태윤-대중회부회장  
(翼)·윤묵-효소공회회장 ·영수-파종회장 ·태신-중구 ·재택-논산  
·재영-수원 ·강릉중회 ·수돈(영흥사) ·영화 ·화자 ·옥늬-대구  
·성회-부여 ·강식-하남 ·수원 봉직량공중회 ·관식-인천  
·정묵-전대구종친회장  
(正)·파종회 ·수선-파종회장 (大邱)대구종친회

## ◎ 1십만원 (49명)

(郡)·대용-용인 ·만화-파주 ·필구(범직)-홍성 ·준용-인천  
(典)진회-대구  
(文)·재성-음성 ·태식-도봉 ·동호-양주 윤식 父 ·윤식-양주  
·태길-안산 ·윤회 ·윤정 ·윤미-대구 재만 子女 ·재덕(순오)-음성  
(都)·재수 ·원회-의성(大) ·재남-나주 ·태종-광주 ·성무-보성  
(提)·윤철-성북 ·대응-천안  
(按)·봉진-성남 ·용국-여주 ·용주-용인 ·용화-인천  
(翼)·태진 ·태경 ·진경-석한회장 孫 ·보화-수원 재영 子 ·선회-강화  
·경민-대구 ·루아-영화 부회장 손녀 ·철회(예천) ·기범-동대문  
·홍교 ·시교-대구 ·선교-수원 ·동수 ·지원 ·태은-논산 재택 孫  
·상회 ·철우 ·재옥 ·재정 ·재춘 ·재진 ·재규-대구 ·기수-화성  
(正)·수진-남양주 ·경량-김포

## ◎ 7십만원 (文)수길-대구종친회장

## ◎ 5만원 (4명)

(文)·동묵-음성(提) ·재응-광진 (翼)·정화-대구 ·재성-무주

## ◎ 6십만원

(文)호길-대구종친회 고문

## ◎ 3만원 (3명)

(按)·태길-은평 ·영화-청주 (翼)재남-대구

## ◎ 5십만원 (37명)

(郡)양천중중회 (副)영식(춘식)-대구  
(文)·동철-이천 ·재극 ·재관-음성 (都)·정-수도권회장 ·원중-법무사  
(大)·태권-파종회장 (提)·용식-의정부 (按)·서령공중회-증평  
(翼)·주식-영주 ·진섭-대구 ·태철-수원 ·진수-동대문 ·태연-인천  
·수인-고창 ·형식-안산이목종친회 ·관찰사공중중-동두천  
·인화-강릉

< 합계 466,440,000 >

<b>성금 모금 계좌안내</b>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b>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중회</b>
※ 반드시 소속(파)과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강진 판서공 · 상락군 묘비 제막식 및 4대위 세향 참례

지난 4월 14일은 판서공(휘 愷) 세향이였다. 해마다 매년 4월 둘째 일요일에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산105 영모재에서 판서공(휘 선) 및 충숙공(휘 승용), 상락군(휘 후), 군사공(휘 칠양) 4위 합동 세향을 모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임의중중이었던 판서공종회(회장 김재구)시대를 마감하고 고유중중으로 새로운 판서공종회(회장 김영환)시대가 시작되는 정기총회와 세향이였기에 그 의미가 각별하였다. 2024년 갑진년 세향은 작년 임시총회에서 초대 판서공 종회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회장이 주관하는 첫 세향으로 작년 창립총회 이후 첫 정기총회이자 토마리 금릉산 선영 묘역 단장 마무리 및 묘비 2기 제막식까지 함께 거행하였다.

## ■ 판서공종회 2024년 정기총회



이날은 안동김씨대종회장 석한(익), 문영공종회장 태현(제), 군사공파회장 준희, 부사공파회장 원호, 문온공파회장 윤만, 대호군공파회장 태권, 안림사공파회장 형남, 문영공 전회장 재영 등 150여 종인이 참례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모두가 입을 모아 그동안 선영을 관리해온 임의중중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새로이 출발하는 고유중중 체제의 발족을 축하하며 1부 정기총회는 영모재 앞마당에 차일을 치고 의자를 놓아 자리를 마련한 후 천만 총무의 진행으로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먼저 총무의 성원보고와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선조님께 대한 묵념 후 중요 참석자들을 소개하였으며 고유중중 영환회장의 인사 말씀과 석환대종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전년도 총무/재무/감사 보고에 이어서 2024년 예산안등 안건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정기총회를 마무리 지었다.

## ■ 갑진년 세향 봉행

판서공 세향은 그동안 재실 영모재에서 받들었으나 금년에는 묘역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판서공 단(壇)의 호석(護石)을 보완하였으며 새로 세운 묘비 2기를 제막하는 등의 행사가 있어 재실이 아닌 묘역에서 제향을 봉행하였다.



▲ 판서공(휘 선) 세향

이날 분정은 초헌관 영환(문), 아헌관 석한(익), 종헌관 희윤(도), 대축 신묵(문), 집례 윤만(문), 찬인 영운(문), 집사 장묵(군), 태길(문), 현묵(문), 형식(익) 등이 수고하였다.

이어서 충숙공(휘 승용) · 상락군(휘 후) · 군사공(휘 칠양) 3위 합동 세향에 앞서 태영 사무총장이 비문을 짓고, 이당 변요인 선생이 글씨를 써서 세운 첨의 평리 상락군(휘 후) 묘비 제막식이 있었다.

합동 세향의 초헌관은 태영(군), 아헌관 형남(안), 종헌관 윤만(문)이 헌작을 했으며, 대축 신묵(문), 집례 재구(군), 찬인 영운(문), 집사 장묵(군), 태길(문), 현묵(문), 형식(익) 등이 맡았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영모재 앞마당에 이동식 뷔페 음식으로 화기에애한 가운데 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참석자 모두에게는 찜기 한세트씩을 선물하여 경향각지에서 멀다않고 참여한 회원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 ■ 선조님 발자취를 찾아서

서울에서 강진까지는 약 380km, 4시간 30분이상 소요되는 먼 곳이다. 1년에 한번 강진세향에 참가할때마다 1박2일로 나서는 이유는 판서공 제향을 참석하되 오가는 길에 선조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현장을 찾아보거나 주변에 위치한 저명한 역사현장을 탐방함으로써 선조님에 대한 숭모정신을 고양하고 문중에 속한 자부심을 키울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에서는 모든 행사와 연계하여 이러한 답사일정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이번 강진행은 문온공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45인승 대형버스를 임대하여 1박2일(4食) 일정을 진행하였다.

## ■ 전북 남원 용장서원(龍章書院)

하행길 점심 식사 전에 전북 남원에 위치한 용장서원(龍章書院)을 먼저 들렸는데 이곳은 남원 양씨 용만공대종회에서 관리하는 서원으로 승덕사(崇德祠)에 양능양, 양주운, 양대박 3위를 모시고 있으며 우리 문온공 척약재 할아버지(휘 구용)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는데 남원 양씨 문중에서는 척약재 할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선정을 베풀었기에 모셨다는 것이며 그동안 계속 향사를 올렸다고 하니 감사드려야 할 일이다.

그동안 문온공파에서는 정기세향(음 3. 17일)에 참석이 어려워 강진 시제 내려가는 길에 들려 참례하는 것으로 같음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정기세향때 참석하기로 하였는바 지난 4. 25일에는 참의공계 봉동문중 김용회 회장이 참석하였고 앞으로도 용장서원 세향에 계속 참석기로 하였다.





현재 물계서원이 복원 추진중에 있으니 문온공 할아버지를 모신 서원으로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강진 세향 가는 길에 들려 인사도 올리고 서원관리하시는 분께 감사와 향축대도 전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 전남 진도 벽파진(碧波津)



▲이순신장군 전첩비에서 기념촬영

남원을 지나 함평에서 점심 식사후 행선지는 진도로 향하였다.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 큰 섬인데 지금은 연륙교가 놓여 육지처럼 건너 다니지만 1984년 진도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는 벽파항이 진도의 관문이자 제주도로 가는 거점항구였다.

진도로 들어가기 전에 울돌목이 있는 해남 우수영에 들렀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때 불과 12척의 배로 명량(울돌목)해전을 치루었던 곳으로 해남 쪽에는 ‘고뇌하는 이순신’ 동상이 서 있다.

우리가 진도를 답사하는 까닭은 삼별초가 강화 임시수도에서 해산하라는 원종의 왕명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동조자는 물론 거부하는 정부 관리 식솔들까지 강제로 배에 태우고 남하하여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이다.

소위 ‘삼별초의 난’으로 정부에 반기를 든 무장집단들은 서해 일대 섬들을 약탈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간지 두달 만에 진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첫 발을 디딘 상륙한 곳이 벽파진이며 이듬해 삼별초를 토벌하러 내려온 김방경의 주력부대가 상륙한 곳도 이곳 벽파진이다.

벽파진에서 대패한 삼별초는 진도 남쪽 남도진성(석성)까지 후퇴후 배중손은 사망하였고 나머지는 김통정이 인솔하여 제주도로 내려가지만 2년후 결국 완전히 진압되었다. 과거 역사에서는 ‘삼별초의 난(亂)’이라고 하여 고려시대 실패한 내란으로 규정하였지만 최근 ‘외세에 대한 항쟁’이라거나 ‘국난극복’등으로 미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몽골(원)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있었다하더라도 당시 국체(國體) 왕정(王政)을 부정하고 70년이상 권력을 행사하던 무신(武臣) 집단의 무력수단이었으며 무신집권이 끝나고 자신들의 안위가 불안해지자 제2의 무신집권에 다름아닌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강화도에 거주하던 양민과 귀족, 관리의 처자들을 강제로 납치하였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진도로 남하하며 많은 해안인접 고을을 약탈하였고 그들이 머물던 진도나 제주도는 난데없는 전쟁통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그곳 거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정리되지 않고 다만 몽골에 저항하였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측 진압군 총사령관 김방경 장군에 대하여 평가를 소홀히하거나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시각으로 기록하고 반면에 삼별초 배중손 등은 그 역할과 의미를 과대포장하는 현실이 아쉽기만하다.

〈과거 진도 제일의 벽파진은 지금은 쓸쓸한 시골향이 되었지만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 이순신 장군의 울돌목 명량해전의 승전을 기념하는 커다란 ‘이충무공전첩비’가 서 있다.〉

이곳 벽파진에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 직전 16일을 머물며 작전을 구상했다는 것인데 삼별초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 전남 진도 용장성(龍藏城)

벽파진에서 산 너머에 위치한 용장성은 용장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삼별초가 강화에서 왕족 승화후 온(溫)을 강칭하여 왕으로 삼고 이곳까지 내려와 용장사를 궁궐로 삼고 주변에 건물과 성을 쌓고 근거지로 삼았다고 하는 곳이다.

산 기슭에 약간의 성벽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최근 발굴 정리를 거쳐 절 터와 건물 터 등이 보이고, 진도군에서는 이 일대를 정비하여 삼별초 항쟁을 내세우며 배중손의 사당을 옮겨 짓고 항몽순의비와 충혼탑을 세우고 홍보관을 지었다.

그러나 기술된 내용 대부분이 (진도사람이라고 전하는) 배중손과 삼별초 위주의 홍보성 자료들이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토벌군으로 내려와 난(難)을 진압한 김방경 장군 등에 대한 기록은 왜곡된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장성에 세워진 배중손 사당. 그 옆으로는 항몽충혼비와 홍보관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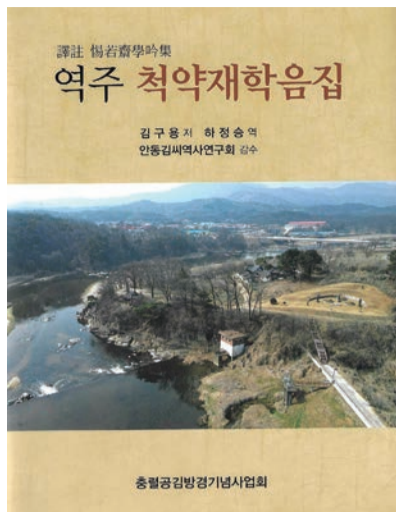
이는 꼭 우리 선조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기 보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팩트)에 어긋나는 것들이기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후손들의 도리이며 안사연의 할 일이라고 본다. 평양감사를 지내신 낙곡 김덕룡 선조님의 시문 ‘제진도용장동(題珍島龍藏洞)’을 감상하며 강진으로 이동한다.

■ 제 진도용장동(題珍島龍藏洞)

遊魂海島敢猖狂 삼별초가 진도에서 미쳐 날뛰며  
建闕營城太陸梁 대궐짓고 성쌓으며 너무 방자해  
我祖當年曾問罪 상락공 그때의 죄를 물으니  
至今人指古龍藏 오늘날 사람들이 옛 용장동을 가리키더라



# <역주 척약재학음집> 출판기념식



2024년 4월 26일,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 취선관 2층 행사장에서는 문온공파종회 주관하에 <역주 척약재학음집> 출판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는 1384년 47세의 나이로 중국에 사신으로 떠나셨다가 유배길에 올라 순국하신 문온공파의 파조 척약재(휘 구용)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한시들을 정리하고 국문으로 번역하여 시집을 펴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척약재 할아버지가 남긴 시문들은 아드님이신 김명리 할아버지가 1400년 '척약재 학음집' 초간본(보물 제1004호, 상주박물관)을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이후 6~7차례 영인본이 더 간행되었고 이본(異本)들이 남아있으나 완전하고 반듯한 번역본이 없어 후손들이 애를 태우다가 한문학 교수로서 척약재 할아버지를 공부하였고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던 하정승 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하게 되었다.

문온공파종회와 안동김씨역사연구회에는 추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7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대조 확인하거나 하교수가 잘 모르는 문중 내력이나 관련 사실들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감수 역할과 여러차례 편집회의, 교정, 재교정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시집(550쪽) 1600부를 인쇄, 배포하는 출판기념식을 갖게 된 것이다. 출판기념식에는 석한 대총회장을 비롯하여 판서공종회, 문영공종회, 안사연 임원들과 주최한 문온공파종회 임원들은 물론 번역을 맡은 하교수 내외분과 지도의 날을 함께 추진하는 양보경 전 총장, 김현명 전 대사, 김선홍 전 총영사님과 출판을 맡아준 다운샘 김영환 대표님을 초대하였으며, 특히 척약재 할아버지가 당대에 교우한 문중들, 목은 이색의 한산 이씨와 포은 정몽주의 영일 정씨, 둔촌 이집의 광주 이씨, 성부 박상충의 반남 박씨 문중 분들도 초대하여 할아버지 때의 우정과 나눔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며 척약재 할아버지를 모신 남원의 용장서원을 세운 남원 양씨 문중과 우리에게서 분적해 나간 사천 김씨 문중 김재섭 회장도 초대하여 '한국의 집' 행사장 취선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축하열기가 뜨거운 현상이었다. 출판기념식은 문온공파 감사이며 안사연 학술이사인 신묵(臣默)씨가 맡아 진행하였는데 개회선언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와 선조님께 대한 묵념으로 예식 순서를 진행하였으며 초대 손님



들은 한분 한분 호명하며 소개하여 큰 박수로 환영하는 예의를 갖추었다.

이어서 <역주 척약재학음집>을 헌정하는 순서로 윤만 문온공파종회장이 나와 시집 3권을 할아버님 전에 바치는 의미로 헌정 후 재배하였으며 사회자가 <역주 척약재학음집> 소개와 출판하게된 경과를 소상히 보고 올렸으며 학음집이 출판되기까지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기여해주신 분들, 영환 추진위원장과 윤식 추진위원(인편으로 전달), 하정승교수와 김영환 도서출판 다운샘 대표께 윤만 문온공파종회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음집 출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는 말씀의 순서가 이어졌는데 윤만 문온공파종회장의 기념사, 영환 추진위원장의 간행사와 석한 대총회장과 하정승 교수의 축사를 청해 들었다.

기념식의 마무리는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석한 대총회장, 봉회 명예회장, 태헌 문영공종회장, 재영 안사연 고문, 영환 추진위원장, 윤만 문온공파종회장, 양보경 총장과 하정승 교수 여덟 분이 축하 떡 케익을 자르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취선관에서의 기념식을 마치고 나서는 분들에게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에코-백에 학음집 책과 기념 타올을 넣어서 선물로 드렸으며 한국의 집 본관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기에 앞서 현관 앞에서 다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본관 방장실과 봉래실, 낭하 가득 60석을 마련하여 코스식 한정식 오찬을 함께하며 축하주와 음료수를 곁들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식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손색이 없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척약재 할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뛰어난 시집(詩集)을 갖게 되어 한량없는 기쁨이며 출간 과정에 참여하여 애쓰신 분들과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분들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김신묵 문온공파 감사(안사연 학술이사), 사진 김발용 군사공파 이사-

## 고창 출신 유학자 보정 김정희 선생 학문과 예술세계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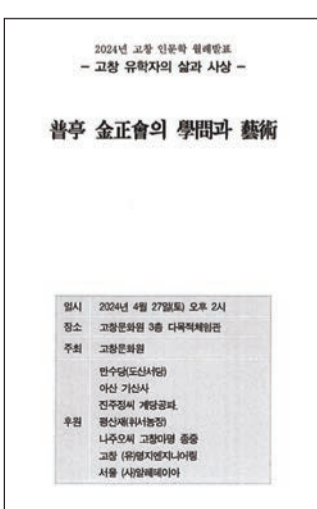


고창문화원(원장 조기환)이 주관·주최하고, 만수당(도산서당)이 후원한 2024 고창 유학자 보정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기념식과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고창문화원 회원과 고창지역학연구소 위원, 군립도서관 인문학반 수강생 등이 다수 참석하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이은혁 전주대 교수가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고창읍 도산리에서 출생한 보정(普亭) 김정희(金正會) 선생(1903~1970년)은 안동이 본관이며 조선 개국공신 익원공 사형의 20대 손으로 어려서는 종조부 항재공(휘 純默)에게 유학을 배우고 장성해서는 후석 오준선(1851~1931년, 노사 기정진의 문인으로 일제를 거부하고 조선백성으로 생을 마감함) 선생을 사사했다.

그후 김정희 선생은 명륜전문학원(현 성균관대학교 전신, 1931~1933

년 수학)에서 신구학문 특히 실학을 깊이 연구하고 당대 석학들과 교류하는 한편 해강 김구진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익히고 1938년에는 전일본문인전에서 풍죽으로 특선을 수상했다.



특히 김정희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를 통해 시국강연 거부 등 항일했으며, 흥년 때에는 구휼하고 고창 도산초등학교 건립에 사재를 내놓는 등 앞장 섰다. 8·15 해방 뒤에는 고창여중 건립에 많은 재산을 희사했으며 상왕등도 생활 1년을 제외하고는 고향 고창에서 시서화(詩書畫)로 일생을 보냈다. 저서로 시집 <매처를 찾아가네>와 문집 <연연당문고> 등이 있다. 고창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육사학자 김경식 박사(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가 선생의 손자이다.



# 2024년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 춘제

- 일시 : 2024.3.24. (일) 10:50~11:50
- 장소 : 포충사 (강원도 철원군 화지리 산1)



2024.3.24. 일요일 강원도 철원군 화지리 소재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 사당 포충사에서 장군을 추모하는 갑진년 춘제를 시행하였다.

포충사는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철원군의 지원과 철원 향교 주관으로 동 매년 2월 중정일에 봄 제향을 8월 중정일에는 가을 제향을 지

내고 있다. 올해 2월 중정일은 양력 3. 24 丁亥로 철원 향교 전교 안현모, 철원군의회 의장 박기준, 강원도 도의회 의원 엄기호, 전 철원군수 정호조, 전 철원 향교 전교 김규세, 현 국회의원 등 유지 20여명과 철원 향교 유림 유생 20여명 안동김씨 종인 1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철원 향교 장의 임병순의 집례로 제향을 진행하였다.

순서에 따라 참석자 소개, 분향, 현관 현주, 독축, 소지, 음복 등의 순서에 따라 초헌관은 철원군 의회 의장 박기준, 아헌관은 강원도의회 의원 엄기호, 종헌관은 요동백 충무공 후손 이며 안동김씨 부사공파 회장 원호가 헌작을 한 후 축문 소지, 참례자 음복을 하였다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씨에 제향 지내기에는 더 없이 좋은 날씨여서 무난하게 제향을 잘 마무리 하였으며 이후 제향 참석자 모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음메식당'으로 이동하여 불고기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다.

포충사 요동백 충무공 봄 제향에 화환을 보내주신 안동김씨대중회 김석한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90세 노모를 위한 이색적인 가족 전시회 소개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중회 김형남 회장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다올투자증권 특설전시장에서 구순이 된 어머니 이은세 여사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자신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린 '가장 소중한 당신, 엄마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장기자랑을 기획하고 가족 전시회를 열었다.

주인공이신 이은세 어머님은 만학도로 방송통신대학교 초고령 졸업자 기록을 세웠으며 63세에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69세인 2004년에 졸업했다.



장남 김형남은 금융업의 임원으로 종사하며 20대부터 사진 찍기 좋아했으며 몇 차례 전시회를 개최한 사진작가이다.

둘째 딸 김용주는 1984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등단한 시인이다.

셋째 딸 김용옥은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화에도 도전 중이다. 셋째 사위 홍채윤은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민화를 출품했으며 예비 화가로 등단을 꿈꾸고 있다.

차남 김명남은 방송업에 종사하며 고가구 수집과 제작을 취미로 하는 예비 공예가로 자작 제품을 출품했다.



# 충무공 김시민장군배 제1회 전국검도대회 성료

- 전국 검객 500여명 참가해 종합우승은 행복검도관 백진수 관장 수상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스님)와 (사)대한검도국제연합(회장 김순태)는 지난 3월30일 공동으로 제1회 전국검도대회를 아우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김법혜 기념사업회 회장과 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이성구·김대응 공동대표, (사)대한검도국제연합 김순태 회장 등 전국에서 500여명 학생과 일반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는 선수단 대표 권나현, 권예승 선수와 대한검도국제연합회장

김순태 회장의 대회 인사, 기념사업회 회장 김법혜 스님의 환영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 수상자는 1위 김다혁 선수 등 16명, 2위 권나현 선수 등 16명, 3위 김태현 선수 등 32명이다.

종합우승은 행복검도관 관장 백진수, 종합준우승은 신화검도관 관장 김상민, 종합3위는 두정검도관 관장 이성훈이 각각 차지했다.

김법혜 회장은 “국난극복의 상징인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이신 충무공김시민장군께서 탄생하신 병천에서 제1회충무공김시민장군배 전국검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자신의 의지를 검 끝에 모아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활인검의 무예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대단결의 선봉에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hbk38@daum.net -



# 제24회 '연기대첩제' 김흔장군 기려...

제24회 '연기대첩제'가 5월 4일 세종시 연서면 고북자연공원 잔디광장 내 연기대첩비공원에서 거행됐다.

세종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엔 세종시장을 대리하여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 최고진 세종교육감,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시의회 김충식(金忠植,翼) 부의장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로 북세종을 중심으로 음악을 통하여 지역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쿼츠합창단의 합창공연과,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 예술을 재현하고 창조하는 '더 크리에이티브 판'의 가슴을 울렁이는 진혼무 공연이 있었다. 임창철 세종문화원장 경과보고로 고려 충렬왕 1291년부터 1292년에 원의 합단(哈丹)무리가 내부의 황위 계승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다 실패하면서 고려로 침략한 것을 세종에서 크게 무찌른 전투로서 고려사에는 733년 전인 1291년 합단적이 강원도를 거쳐 충남 연서면 쌍전리 일대까지 침입하니, 우익군 김흔(金忻), 좌익군 한희휴(韓希愈), 중익군 인후(印侯) 장군이 5월 5일 대박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벽에 기습공격을 가하니 처음에는 이기는 듯 하다 뒤로 밀리자 김흔(金忻) 장군이 긴 칼을 빼어들고 '물러나는 자는 목을 베겠다.' 소리치며 전투를 다그치니 고려 병사가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승리하였는데 당시 원나라 합단적의 죽은 시신이 공주 금강까지 30여리 널려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전투는 5월 8일 원수산 전투로 달아난 합단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예기병이 연합군을 공격하자 한희유 장군이 긴 창을 가누고 말을 달려 적장의 머리를 베어 창에 걸어 올리니 아군의 기세가 하늘 높이 치솟아 적을 전멸시키니 이것이 2차 승첩이었다.

연기대첩이란 말은 세종대왕께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원수산을 설명

하면서 이곳이 대첩을 이룬 곳이라 기록하였다. 세종지역에 큰 대첩이 있었음을 잘 모르고 있다가 세종향토사연구소 위원들의 연구로 알게 되어 세종시에서는 2000년 4월 15일 전적지 부근인 고북저수지에 연기대첩비를 건립하여 2001년도부터 제를 올려 제24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문화원장으로 연기대첩제의 연구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신 장영 대한노인회 세종지회장님이 자리에 같이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류제일 문화관광국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연기대첩 이후 733년이 흐른 오늘, 당신들의 후손인 세종시민들은 당신들의 성스러운 희생과 용기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며 "세종시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살피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기념사와 헌화와 분향으로 행사를 마쳤으며, 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에 고려를 침략했던 원나라 합단(哈丹) 반란군을 정좌산과 원수산 인근에서 궤멸시킨 전투로서 살수대첩, 안시성대첩, 귀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의 7대 대첩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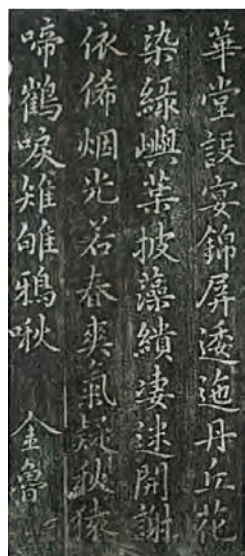


▲ 김태헌(金泰憲,提) 문영공종회 회장 분향

안동김씨에서는 김재욱(金在旭) 대종회 고문, 김재석(金在錫) 전서공파종회 회장, 김권회 처사공회장, 김진회(金珍會), 참판공회장(이상 전서공파)과 김태헌(金泰憲,提) 문영공회장과 김규원(金奎元) 제학공파종회장, 김덕응(金德應,提)부회장, 김석응(金石應,提) 문영공 재무이사과 김태철(金泰喆,翼) 문영공 총무이사 등 15여명의 종인이 참석하였다.

- 김태철(金泰喆,翼) 문영공 총무이사 -

## '사자관(寫字官)' 김노(金魯) 선조님의 에피소드



▲ 대동서법

사자관(寫字官)은 조선시대 외교문서를 관장한 관청인 승문원(承文院)의 사자관청에 소속돼 외교문서와 왕실 기록을 작성하는 전문 관원이다. 사자관이 저지른 죄는 중범죄가 아닌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특권도 있었다. '중종실록'에 전문직인 사자관 김노(金魯, 1498~1548) 선조님의 자긍심을 볼 수 있는 재미난 일화가 한 대목 실려 있다.

1539년(중종 34) 도제조 좌찬성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은 판교(判校) 황염(黃恬)을 불러 사자관이 "글씨를 빼돌게 쓰고 크기도 같지 않으니 조심해서 글씨를 쓰도록 단속하라"고 나무랐다. 이때 사자관은 이조좌랑 김노(金魯)였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김노는 "내가 글씨를 바르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늙은 제조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것이다. 만일 외교문서를 쓰는 종이를 제조(提調)에게 주고 쓰라고 하면 잘 쓰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전해들은 소세양은 이 일로 마음이 상해 임금에게 아뢰기도 하였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무려 정1품에 해당하는 도제조를 쏘아붙인 사자관 김노(金魯)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에는 사헌부 장령을 지낸 유정수(柳廷秀)묘가 있는데 비문을 소세양이 짓고, 김노가 글씨를 쓴것도 이 시기이다.

김노는 안동인으로 대사헌과 경상감사를 지낸 김희수(金希壽)의 아들로 부자가 글씨로 명성이 있어 <이가서법(二家書法)>과 <계주문(戒酒文)>이 전한다. 안동김씨 을미대동보의 표제 글씨도 김노의 필체를 집자한 것이다.



# 함양 낙포영각 한식제례

2024년 4월 5일 금요일 경남 함양 매각마을의 낙포영각(洛圃影閣)에서 익원공 할아버님의 한식제례가 있었다.

이날 제례는 영정을 고장에서 함양으로 모셔오고 봉안 관리하여 온 목사공 계파의 함양 종친께서 담당하던 초헌관의 분정을 처음으로 익원공파종회의 영수(榮秀) 회장께서 하셨다.

아헌관에는 함양의 재두(在斗,牧), 그리고 종헌관에는 태헌(泰憲,提) 문영공회장께서 맡아 주셨으며, 형식(亨植,文)의 독축과 태철(泰喆,文)의 집례로 태신(泰信,牧) 부회장과 태연(泰連,孝) 사무국장께서 집사를 맡아주었다. 참여종친은 윤묵(允默,孝)지파회장, 태용(泰龍,文)부회장, 그리고 용주(容周) 문정공 사무국장이 안동에서 참석하여 주었다.

낙포영각 한식 제례에 대한 함양 인근 종친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관계로 함양에서는 효회(孝會,牧), 재춘(在春,牧), 재두(在斗,牧) 종친만이 참석하여 주셨고 제례를 준비하는 10여명의 아주머님께서 함께하여 주었으며 한식제례 후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특히 함양 거주 종친께서 맡아오던 초헌관 분정을 처음으로 파종회로 이관하여 주신 그간 제례를 주관하던 효회(孝會,牧) 종친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이곳 경남 함양군 안의면의 안동김씨들은 익원공의 증손자인 목사공 김적(金積)의 손자인 화산군 김해(金澗), 그리고 그의 아들인 덕린(德麟), 덕기(德麒), 덕용(德龍), 덕봉(德鵬), 덕곤(德鵠) 오형제 중 둘째인 침지중추부사 김덕기(金德麒)의 차남으로 회항(會行)으로 14대조인 함열현감 김수义的(金守義)가 이곳 함양 안의면의 입향조가



된다.

1930년대에는 초동리 매각마을의 거주민은 36가구 전체가 안동 김씨였으며, 당시의 한식절사에는 함양 서상, 거창 신원과 운양, 산청 생초, 멀리 부산 등 부근의 종친들이 많이 모여 성대히 봉행하였으나 이제는 마을에 남은 9가구 중 8가구가 안동김씨이나 그나마 8가구 중 5가구는 여자분만이 거주하신다고 한다.

- 태철 대중회 이사(문영공 총무이사) -

##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장군 전사지 채토 · 합토 행사와 고유제



- 일시 : 2024.3.24. (일) 15:00~16:00
- 장소 : 요동백 충무공 배위 정경부인 파평윤씨묘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삼수리 삼송산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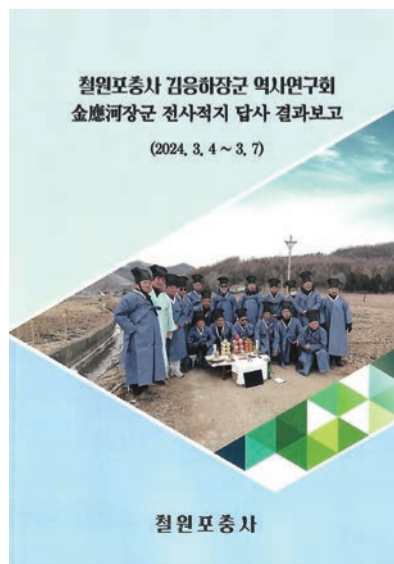
철원 향교 전 전교이며 김충무공선양위원회 회장 김규세, 요동백 충무공 13대손 원호, 철원종회 회장 태형, 장의 임병순, 김규훈, 등 20여명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삼수리 소재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장군 배위 정경부인 파평윤씨 묘소에서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장군이 전투중 전사한 만주 심하 지역 2차 답사 시(2024.3.4.~3.7) 사허루에서 채토하여 가져온 흙 합토 고유제를 지냈다.

철원문화원역사연구소 소장 임병순의 집례로 순서에 따라 강신례, 분향, 헌작과 고축, 소지, 음복 등으로 고유제를 올리고 전사지에서 채토한 흙을 봉분 사방 4곳에 한삼(손삼) 씌 써서 봉분에 합토

를 함으로써 합토제를 마무리하였다.

고유제 초헌관은 김충무공 선양위원회 위원장 김규세, 아헌관은 원호(부사공파 회장, 충무공 김응하장군 배위 정경부인 13대 차종손), 종헌관은 태형(철원 종회 회장)이 헌작을 하였다. 고축은 김태룡 철원 역사연구회 사무국장이 고축을 하였는데 “명나라 원군으로 금나라 대군을 상대로 이역만리 만주 전장터에서 외롭게 고군 분투하다 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요동백 장군이 405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혼이 서린 전사지 한줌의 흙을 장군의 배위 정경부인 파평윤씨 묘소에 합토를 하게 되었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지십시오” 라는 애절한 고축에 가슴이 아렸다.

고유제에 참석하여 주신 이우형 연강역사연구소장 등 철원 향교 장의 여러분 등 장군의 후손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심하전투는1619년 (광해군11) 3월 누르하치를 정벌하기 위해 출병한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후금군에게 패한 사건이다. 이때 좌영을 방어하던 조선군 장수 김응하가 전사, 충무공의 시호를 추서 받았고, 명나라 신종 황제는 그를 요동백에 추서했다.



# 통일부장관 김영호,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 콘서트 성황리 마쳐...

지난 4월27일 통일부(장관 김영호)와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회장 김법혜)가 공동 주최한 「찾아가는 북 스토리 토크 콘서트」가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의 높은 시민 의식과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법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법혜 기념사업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신동헌 충남자치안전실장, 안상국 민주평통천안시지회장,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사)충무공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 천안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개막공연, △환영사 및 축사, △탈북민 공연, △감사패 수여, △통일부 장관 기조 강연, △장관과 초청 패널의 토크 콘서트, △질의응답, △청라합창단, △검도단 시범 공연 순으로 진행 되었다.

김법혜 기념사업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무공 정신의 근원은 호국 충절의 애민 애족 정신이라 할 것인바 지역을 나누지 않고 계파를 나누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충신은 곧 무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지구상

에 무기가 사라지고, 침략전쟁을 원천 봉쇄하는 국제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강력한 안보와 국방력이 없이는 평화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북 분단의 세월은 70년을 훌쩍 넘겼지만 우리 한민족이 함께 산 세월은 5천 년도 더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한민족 민족공동체임을 생각하며 평화와 통일의 정책이 잘 실현되어 평화적 통일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평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후 토크콘서트에서 北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 영화 비욘즈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하였던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가 험한 탈북 여정과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진솔히 풀어내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통일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통일부장관(사진 좌측)과 이소연 대표(사진우측)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윤정, 언론중재위 첫 여성 사무총장 취임



익원공파 전북 고창 문중의 김윤정(金潤貞, 55女) 종친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조직 창설 43년 만에 나온,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다.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있는 언론중재위는 1981년 설립된 이래, 언론 오보 등에 의한 침해를 조정·중재(정정, 반론보도)하고,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해 왔다. 선거 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영한다. 김윤정 사무총장은 중재위원 90명을 뒷받침하고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 110명을 총괄하는 지위이다. 휘하의 사무처는 3 본부장, 1 실장, 감사관, 12 팀장, 10개 지역사무소장 체제로 운영된다.

언론중재위원 90명은 부장판사, 변호사(30명),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직 언론인(30명), 그 외 언론학 및 법학 교수로 구성되어 18개 중재부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중재부는 5명씩으로 구성되며, 중재부장은 현직 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사무총장은 목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언론중재위에 입사한 뒤 광주사무소장, 조사1팀장, 운영본부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 정책대학



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기자 인터뷰에서, “언론중재위의 여성 후배들에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결코,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융통성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법정 업무인 언론 조정 중재 사건 처리 및 시정 권고심의, 선거 기사심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축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 ■ 김성희 국회의원 (金城會, 未詳)



- 지역구 : 경기 고양시 갑
- 정 당 : 더불어민주당
- 출 생 : 1972년 11월 20일 (51세) 서대문
- 직 업 : 방송인
- 학 력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졸업
- 경 력 :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 김영환 국회의원 (譜名 長植, 翼)



父 태경, 祖 수회 효소공계 제함(梯誠) 후손

- 지역구 : 경기 고양시 정
- 정 당 : 더불어민주당
- 출 생 : 1971년 8월 27일 (52세) 전북 부안
- 직 업 : 방송인
- 학 력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대학원
- 경 력 : 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 김용만 국회의원 (容萬, 翼)



父 揚(보훈처장) 祖 信(장관), 曾祖 九(白凡)

- 지역구 : 경기 하남시 을
- 정 당 : 더불어민주당
- 출 생 : 1986년 08월 14일 (37세)
- 직 업 : 사단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 학 력 :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문학사 정치학 위, 2005.9.~2010.5.)
- 경 력 : (전)LIG넥스원 근무  
(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訃音】

### ■ 제약계 최장수 CEO, 김상조 前 안동김씨대중회 회장 별세



안동김씨대중회 17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상조(金相祚, 1935) 회장께서 2024년 3월 4일 오후 1시 향년 8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다. 김 회장은 제학공파 후손으로 구암공(龜岩公, 諱 忠甲)의 12대손이다.

고 김상조 회장은 1999년 5월 대중회장에 취임하여 2002년 3월 이임할 때까지 안동 충청공 능동재사를 증건하고 안동김씨대중회 홈페이지를 운용하는데 이바지하셨다. 김 회장은 전매국 사무관을 지내신 아버지 휘 인호(寅浩)의 3남 4녀 중 차남으로 충남 천안 병천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뒤 1962년 종근당 공채 1기로 입사했다. 23년간 종근당에서 일한 뒤 1986년 한국 글락소 사장과 1992년부터 1994년 종근당 사장을 역임했다.

1994년에는 삼천당제약 사장으로 취임해 12년 동안 삼천당제약이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2007년 삼천당제약 부회장으로 은퇴하기까지 제약업계에서 45년 동안 활약했다.

2005년에는 항생제를 초보 단계에서 일약 선진의약품 수준으로 발전시켜 완제의약품 상태로 세계시장에 수출한 공을 인정받아 제33회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슬하에 1남 두응(斗應)과 2녀 지응(志應), 연응(延應)을 두었다. 묘는 수원경찰서장을 역임하고 대중회 부회장을 지낸 상기(相祺) 씨이다.

### ■ 전 국회의원 (按)태룡 대중회 고문 별세



안동김씨대중회 태룡(泰龍) 고문께서 2024년 4월 22일 향년 9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1934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에는 충남대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 제3대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다가 5·16 쿠데타로 활동이 정지됐다. 충남대 강사로 헌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1979년 김영삼(YS)의 강경투쟁론을 거들었다가 긴급 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는 등 3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정치규제에 묶였다가 민주산약회,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에 이어 1985년 신민당 창당에 참여하고 대전 중구에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유족은 2남 5녀로 식(植)과 병수(柄秀)씨, 5녀는 진숙·상숙·남숙·문진·정원씨 등이 있다.

### ■ 변호사 (都)태조 대중회 고문 별세



안동김씨대중회 태조(泰祚, 보명 在祚) 고문께서 2024년 4월 22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1933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에는 제13회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하고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하여 울산지청장을 역임하고 87세까지 부산에서 최장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안동김씨 부·울·경종친회를 창립하는데 일조하면서 지역 종친회장을 역임하고 대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2남 3녀로 재현(보명, 宰會)·재범(보명, 範會)씨, 3녀는 선희·상희·숙희씨 등이 있다.

### ■ (按)현수 이사 별세

안동김씨대중회 이사이며, 안림사공파종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현수(보명 泰東)님은 병사공 공석(公奭)의 후손으로 종사에 열정적인 활동하다가 2024년 2월 19일 향년 72세로 별세했다.

현수님은 사무국장 재임중에 안림사공파의 역사《오은(梧隱) 김사렴(金士廉) 600년사》편찬과 청주 오창의 묘하 영모재 증건에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기도 했다. 유족은 딸 유미씨가 있다.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령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 보인고등학교! 학문으로 벼슬 모으고 인(仁)을 보완하며 성장한다.



김석한 회장은 인조모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한 보인 학원을 인수해 일류 명문고로 키워낸 학교 경영자이자 구자철 선수를 배출해 낸 축구 명문고를 수십 년간 후원한 축구 전문가이자 열성팬이기도 하다.

보인고는 한일 합방을 앞둔 1908년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함에서 서민들의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개교하였다. 지금도 애국심을 갖고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교육이념을 통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이름 보인(輔仁)은 논어의 '以文會友 以友輔仁'에서 나오는 말로 '베풀'을 의미하며, 보인의 교훈은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로 又新(우신), 정직, 배려의 가치를 담고 있다.

김석한 회장의 학교 경영은 국가적으로는 '인재 육성', 사회적으로는 '부의 환원', 개인적으로는 '모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철학을 담아 재단 이름을 '大州학원'으로 바꾸었으며, 취임 당시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였던 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고 다시 자율형 사립고로 변모시키는 힘든 과정을 통해 '매일 새롭게 발전하자'는 '又新'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으로 교사를 채용하였고, 선발과정은 매우 까다로웠다. 서류전형과 전공·교양·인적성검사로 나뉘는 선발고사에서 실력과 성실성을 살폈으며, 1~3차에 이르는 수업 시연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달력과 교수 능력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이르는 심층 면접을 거쳐 현재 보인고 73명의 교사진이 선발되었으며, 김석한 회장은 이렇게 선발된 교사들이 보인의 최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인 젊은 교사들이 늦은 밤까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학교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교육을 실천했다. 이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하듯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김석한 회장의 학교 경영 의지가 밑바탕이 되었으며, 학교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서로 협력과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첫 번째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자는 4명이었다. 이 결과를 본 김석한 회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년 뒤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된다. 자사고 인가를 받은 2011년, 첫해에는 학생 지원율이 정원의 77%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미충원한 23%는 추가 모집을 통해서 채워야 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지원율이 상승하여, 1.01:1, 1.45:1을 거쳐, 2024년에는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4번째로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되어, 강동 송파 지역에서 학생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에게는 '보내고 싶은 학교'로 우뚝 올라서게 된다.

표1) 최근 3개년 진학 추이

(중복합격 포함, N수생 포함)

	2022	2023	2024
의치한약수	66	48	44
SKY	108	104	110
SKY 서성한	213	193	195

표2) 2024학년도 주요대학별 합격 현황

(중복합격 포함, N수생 포함)

대학명	합격생 수	대학명	합격생 수
서울대	33	경희대	21
연세대	45	한국외대	30
고려대	32	서울시립대	5
서강대	9	건국대	22
성균관대	41	동국대	13
한양대	35	홍익대	37
중앙대	47		

'인성 교육이 기본이 되면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라는 김석한 회장의 교육철학은 입시실적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2022년 입시실적이 크게 향상된 이래 그 실적은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올해는 의치한약수에 44명, 서울대에 수시와 정시를 포함하여 총 33명이 합격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각 45명, 32명의 학생이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에 41명, 한양대에도 3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이는 송파·강동 지역 고등학교 중 눈에 띄는 결과로서 명실상부 명문고등학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보인고는 축구로서도 명성이 높다. 김석한 회장은 보인고에 축구부가 생긴 이래 줄곧 후원회장으로서 학생 선수들의 숙식, 스카우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수 출신 체육 교사를 감독으로 선임하며 선수 선발, 육성, 진학 등에서 나오던 학교 스포츠의 악습, 잡음과 단절하고, 지금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대회 출전 경비 각출 관행도 없었다. 또한 축구연맹이 승인한 FIFA 공식 규격의 인조 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그 결과 보인고는 2021년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 2022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경인리그2에서 우승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끊임없이 최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으며, 보인고의 대표 선수인 구자철 선수를 비롯해 최철순 선수, 김대원 선수, 이한범 선수, 이재익 선수 등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보인고는 그때마다 김석한 회장의 리더십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유연하게 대처하여 도약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도 보인고는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라는 교육 신념과 학생, 학부모 만족 경영이라는 경영 방침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